

## 제13차 벤처CEO포럼 개최



협회와 전자신문이 공동주최하고 이순신리더십연구회가 주관한 '제13차 벤처CEO포럼'이 4월 27일 코엑스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개최됐다. '이순신과 벤처기업경영자의 리더십'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서강대학교 지용희 교수가 강연하고, SNU 프리시전 박희재 대표(협회 부회장)와 한국신지식농업인회 정운천 회장이 패널로 참석해 토의시간을 가졌다.

지용희 교수는 주제강연에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으로 ▲핵심역량을 쌓는다 ▲공정한 불평등을 실천한다 ▲집중전략을 활용한다 ▲리스크 관리에 철저한다 ▲기록한다 ▲마음을 비운다 ▲겸손하다 등을 들며 벤처기업인이 벤처마케팅에 할 덕목들을 강조했다.

## 제3차 벤처윤리학교 개최

협회는 5월 3일 한국기술센터 중회의실에서 전국 벤처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윤리경영을 실천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기업인간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제3차 윤리학교를 개최했다. 벤처윤리학교는 협회가 벤처기업의 윤리경영확산사업을 펼치기 위해 지난 2002년 8월에 조직한 벤처윤리위원회(위원장 강석진, CEO포럼 회장)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한양대 한정화 교수가 '벤처기업의 위험관리'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서울시립대 이춘우 교수는 '기업윤리와 기업경영'을, '윤리경영 사례연구'는 국민은행 윤리담당 신화영 차장이 발표했다. 제3차 윤리학교에는 34명이 참가하여 33명이 수료했다.



## 협회 조현정 회장, KTV '특별한 강의' 초청 특강



협회 조현정 회장은 5월 3일 KTV '특별한 강의' 프로그램에 초청되어 '다시 벤처다'를 주제로 특강했다. 조회장은 이날 특강에서 벤처 1호인 비트컴퓨터의 창업부터 성장과정을 통해 건전한 벤처생태계 조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21세기 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벤처산업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벤처리더들이 주축이 된 협회의 다양한 활동과 향후 2010년에 이루고자 하는 벤처비전 2010을 설명했다. 특별한 강의 조현정 회장편은 5월 25일경 방송될 예정이다.